

*경배와 찬양	임재 / 놀라운 은혜 / 감사와 찬양드리며 / 아름다우신	다같이
대표기도		안혜성
*성경봉독	시 34:18	김승남
말씀	소망, 두려움과 죄의식과 수치심을 넘어	김상범 전도사
응답찬양	마음이 상한 자를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전도사
광고 및 환영		안혜진
*파송찬양	민족의 가슴마다	다같이
*권면과 기도		김상범 전도사

헌금안내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 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축복케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 까지
나를 빛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소망, 두려움과 죄의식과 수치심을 넘어 (시 34:18)

18 여호와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새 해를 맞이하여 소망에 관한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 주시는 귀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크리스찬인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잘못된 생각과 마음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 **첫번째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다수의 심리학자들은 두려움이 학습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자라면서 직접 경험을 통해서 두려움을 배워갑니다. 혹은, 간접적 학습으로도 두려움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두려움은 내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생깁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줍니다.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 중에 정작 진짜 필요한 문제는 불과 8%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안 해도 되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불필요한 근심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마 6:7, 뱀전 5:7)

이보다 심각한 것이 영적 두려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과도하게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미지로 자리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지가 대단히 힘듭니다. 이런 분들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 사건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지, 무서워 벌벌 떨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렘 29:11, 딤후 1:7)

두번째 극복해야 하는 마음은 죄의식입니다. 이는 이미 전심으로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무서운 재판관’ 하나님의 이미지와도 깊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민감한 것은 중요하지만, 죄의식에 놀려 사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정결케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사함 받은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 103:12, 히 10:17-18, 사 43:25)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하는 마음은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죄의식이 굳어져서 내 존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수치심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정체성까지 뒤흔드는 굉장히 심각한 영적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기억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지금 나의 행동과 나의 영적 상태와 관계없이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큰 영적 안정감과 평안함을 줍니다.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데, 우리가 그 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 벌벌 떨고, 그 분 앞에만 가면 자꾸 작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내 딸아. 내 마음을 좀 제대로 알렴. 나는 너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한다. 내게 오렴. 내가 너를 안아주고, 너를 품어주마. 그리고, 너에게 참 소망을 부어 주겠다. 그 소망을 갖고, 힘차게 삶을 살아가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망을 받아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묵상과 나눔을 위한 질문

1. 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요, 두려우신 하나님인가요? 솔직하게 나누어 봅시다.
2. 나는 이미 회개한 죄를 하나님이 기억조차 않으시고, 지금 나의 행위와 관계없이 주의 자녀임을 믿나요?
3. 하나님과 나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받으신 소망이 있으신가요? 아니라면, 그런 소망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파송찬양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계절)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환영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ZOOM 예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현장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해주시고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수련회 연기

코비드 상황 악화로 계획되어 있던 수련회는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1:1 제자양육 동반자반 및 1기 인도자반 모집

- 인도자반: 2/9-3/30 (8주, 수), 타교회 인도자반/동반자반 및 제자훈련
수료자 중 희망성도
- 동반자반: 2월부터 (16주), 전 희망성도
- 신청: 1/10부터 접수 예정

팀원모집

예배팀 : 방송, 음향, 카메라 등으로 섬기고 싶은 분의 지원 받습니다.
(문의 : 신승윤)
찬양팀 : 싱어, 퍼스트, 세컨드, 드럼, 기타, 베이스 등 찬양팀으로 섬기고 싶
은 분들의 지원 받습니다 (문의 : 김태동)

임직식

- 오늘 2부 예배 중에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청년부에서도 서리집사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신임장로: 김중환 재임장로: 민동하, 이성신
신임안수집사: 김상완, 이연숙, 정훈민, 정희진, 최병영
재임안수집사: 고조이, 배한원, 조현철, 함종원
신임권사: 조은규, 지정란
재임권사: 김건희, 김혜경, 용귀란, 이숙영, 천금화
명예권사: 김기원, 엄경희, 이서귀
- 신임 서리 집사 임명식도 함께 있습니다.
청년부 신임 서리 집사 : 김경윤 문해강 박규상 설현기 안광민 오세원
전춘우 최현준 (이상 8명)

현금 내역 신청

2021년 현금 내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바랍니다.
문의 : 최병진 장로 (cbjkym@yahoo.com; 512-497-7644)

PSALM

예배/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1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매월첫주제외)
정기리더모임	매월 첫주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am
토요무릎기도회	토 6:30am

제 50권 3호

JAN 16
2022AKPC
PSALM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II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전도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라이드 팀장	안혜진	anhyejin0714@gmail.com
새가족 팀장	하지수	jisujeon2015@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512 454 1727 / fax -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AKPC 청년부 | www.facebook.com/groups/akpc.psalm

@akpc_psalm | www.instagram.com/akpc_psalm